

소상공인 경영 숨통 틔운다 ‘25만원 바우처’ 접수 본격화

소진공, 초기 이틀 훌쩍 2부제 신청
작년 매출 1억400만원 미만 대상
설 명절 앞두고 230만명 혜택 기대
공과금·보험료·연료비 등 사용
별도 서류 없이 온라인 간편 신청

설 명절을 앞두고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바우처 25만원 지급을 위한 접수가 본격 시작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 사업체가 대상으로, 예산 총 5790억원을 통해 약 23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9일부터 본격 시작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전기·가스요금 등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바우처를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신청은 이날부터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별도의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소상공인이 신청 단계에서 바우처를 지급받을 카드사(9곳)를 선택하면 카드사를 통해 디지털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소진공은 신청 절차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시스템을 개선했다. 지난해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의 경우 신청 시 기존 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해 정보 재입력에 따른 불편을 줄였다.

소진공은 접수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신청 첫 날(9일)과 둘째 날(10일)은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맨 오른쪽)이 9일 오전 9시부터 시작한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 접수 상황을 소진공 대전 본부에서 임직원들과 함께 살펴보고 있다. /소진공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2부제를 운영한다. 첫 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3·5·7·9를 대상으로 접수를 받았고 둘째날은 짝수인 2·4·6·8·0 사업자가 대상이다. 11일부터는 숫자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 대상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 ▲2025년 연 매출액(또는 환산매출액)이 0원 초과 1억400만원 미만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영업 중인 사업체로서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업종의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지만 유흥업, 담배 중개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불가능하다.

받은 디지털 바우처는 ▲필수 지출 공과금인 전기·가스·수도요금(공과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4대 보험료) ▲사업 수행을 위해 운행한 차량 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로 납부에 사용할 수 있다. 바우처는 신청일로부터 약 사흘째부터 쓸 수 있다.

소진공 관계자는 “소상공인들께선 반드시 공식 누리집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공단은 어떠한 경우에도 입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는 만큼 지원 사업을 사칭한 괴심 사이트나 문자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소진공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전용 콜센터(1533-0600)나 소진공의 전국 78개 지역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가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신속한 집행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보탬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한화에어로, 방산성장 타고 ‘최대 실적’

지상방산 매출 8.1조·영업익 2조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지상방산과 항공우주 부문의 성장세에 힘입어 3년 연속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방산·조선해양 사업을 아우르는 포트폴리오 확대와 수주 성과가 실적 개선을 뒷받침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매출 26조6078억원, 영업이익 3조345억원을 기록했다고 9일 공시했다. 전년 대비 매출은 137%, 영업이익은 75% 증가했다. 지상방산·항공우주 부문의 꾸준한 성장, 한화오션의 연간 전체 연결 편입 등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지상방산 부문은 지난해 매출 8조 1331억원을 기록하며 최근 2년간 매출 규모가 약 두 배로 확대됐다. 영업이익은 2조129억원으로 사상 처음 2조원을 넘어섰다. 노르웨이 K9 자주포, 에스토

니아 다연장 첨단 유도미사일 천무 수출을 달성했으며, 국내에서는 7054억원 규모의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L-SAM) 양산 계약과 2254억원 규모의 천검(소형무장헬기용 공대지유도탄) 양산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말 기준 지상방산 부문 수주잔고는 약 37조2000억원에 달한다.

항공우주 부문도 성장 흐름을 이어갔다. 지난해 매출은 2조5131억원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군수 물량 확대와 생산성 개선 효과가 맞물리며 영업이익 23억원을 기록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자회사 한화오션은 지난해 12개월 전체 실적이 처음으로 연결 결산에 반영되며 통합 방산 시너지 확대의 기반을 마련했다. 한화오션은 연간 매출 12조 6884억원, 영업이익 1조1091억원을 기록했다. /원관희 기자 wkh@

HD한국조선해양, 영업이익 3.9조 ‘역대 최고’

조선 계열사 호조가 실적 견인

HD현대의 중간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29조 9332억원, 영업이익 3조9045억원을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 전년 대비 매출은 17.2%, 영업이익은 172.3%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8조1516억원, 1조37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8%, 108% 늘었다. 고부가가치 선박 인도 물량 증가와 생산성 개선이 이어지며 조선 계열사 실적이 호조를 보인 영향이다.

계열사별로 보면 HD현대중공업은 매출 17조5806억원, 영업이익 2조375억원을 기록했다. HD현대삼호는 매출 8조714억원, 영업이익 1조3628억원으로 HD한국조선해양의 3년 연속 흑자 달성에 기여했다.

합병 전 HD현대미포는 3분기 누적 기준 매출 3조7186억원, 영업이익 3587억원으로 집계됐다.

선박 엔진 계열사 HD현대마린엔진은 엔진 물량 증가와 부품 사업 매출 확대에 힘입어 매출 4024억원, 영업이익 759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태양광 계열사 HD현대에너지솔루션은 매출 4927억원, 영업이익 412억원을 기록했으며 회사 측은 국내외 판매량 증가와 판가 회복을 배경으로 꼽았다.

사업 부문별로는 조선 부문 매출이 25조365억원으로 전년 대비 13.4%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3조3149억원으로 119.9% 늘었다. 엔진기계 부문은 매출 4조2859억원, 영업이익 7746억원을 기록했다. 해양플랜트 부문은 매출 1조2436억원, 영업이익 1379억원으로 전년 대비 흑자 전환했다. /유혜은 기자 dhahledhale@

플라스틱 재활용업 상생 대기업 투자·확장 자제 동반위, ‘대·중소 협약’ 3년 연장

대기업들이 플라스틱 재활용 시장 추가 진입이나 설비 확장을 자제하기로 했다. 플라스틱 재활용업을 영위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3년간 상생을 더 이어가기로 하면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플라스틱 재활용 관련 대기업 9개사, 한국화학산업협회가 참여한 가운데 ‘플라스틱 재활용업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식’을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기업에선 금호석유화학, 롯데케미칼, 삼양패키징, 한국아네오스스티플루션, 한화솔루션, BGF에코사이클, DL케미칼, HD현대케미칼, LG화학이 두루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플라스틱 재활용업계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대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지난 2022년 11월 당시 체결한 상생협약의 연장으로, 협약기간은 3년이다.

추가 협약을 통해 대기업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해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영역인 고부가·고품질 제품 제조에 집중하고 물리적 재활용 시장진입 및 설비확장을 자제하기로 했다. /김승호 기자

현대리바트, 이라크 가설공사 수주 바스라 해수처리시설 1178억 규모

현대건설과 계약 맺고 공사 착수
내년 6월까지 근로자 숙소 등 건설

현대리바트가 1178억원 규모의 이라크 해수처리시설 가설공사를 맡는다.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토탈 인테리어 기업 현대리바트는 현대건설과 총 1178억원(약8010만 달러) 규모의 ‘이라크 바스라 해수처리시설 가설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수주금액은 현대리바트의 연간 매출(2024년 기준 1조 8707억원)의 6.3%, 연간 B2B 사업 매출(2024년 기준 6593억원)의 약 18%에 달하는 규모다.

가설공사는 정유, 가스, 석유화학 등 대규모 플랜트 공사에 필요한 숙소나 사무실, 임시도로 등의 기반 설비를 갖추는 사전 공사를 말한다.

현대리바트 관계자는 “통상 국내 건설사가 수주한 대규모 해외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에도, 가설공사는 현지 건설사들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이번 가설공사의 경우 기존 중동 건설 프로젝트에서 보여줬던 우수한 공사 수행능력 뿐만 아니라 현대리바트만의 고



현대리바트가 진행한 사우디아라비아 마잔(MIP) 가설공사 현장 전경.

품질 시공 역량과 가격경쟁력을 인정받아 복수의 중동 현지 건설사들이 참여하는 경쟁입찰에서 사업을 수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대리바트는 이번 가설공사 계약을 통해 내년 6월까지 이라크 바스라 해수처리시설 공사현장에 근로자 숙소와 사무실, 부대시설 등 가설공사 현장의 기반 시설과 전기·소방·통신 등의 설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라크 바스라 해수처리시설 프로젝트는 이라크의 수도인 바그다드에서 동남쪽으로 500km 떨어진 코르 알 수바이르 항구 인근에 추진 중인 해수 처리 플랜트를 건설하는 공사다. /김승호 기자

청호나이스, 프리미엄 수면 솔루션 선택

하이엔드 매트리스 ‘네스티지’ 공개
라이프스타일 맞춤 매트리스 3종

청호나이스가 차별화한 수면 완성도를 구현한 하이엔드 매트리스 ‘네스티지’(사진)를 중심으로 라이프스타일 맞춤형 매트리스 3종을 출시했다.

9일 청호나이스에 따르면 수면 환경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매트리스 선택 기준 역시 개인의 체형과 수면습관에 따라 세분화되고 있다. 이에 최상위 하이엔드 라인 네스티지를 중심으로 ▲로얄스위트프라이م ▲멜로우드림을 함께 선보였다.

‘네스티지’는 프리미엄 매트리스에 요구되는 핵심 설계를 적용해 기본기부터 차별화한 제품이다. 피아노 줄에 사용되는 고탄성·고강도 강선을 적용한 포켓스프링을 메인 스프링으로 구성하고, 그 위에 ‘마이크로 포켓스프링’을 한 층 더한 2중 스프링 구조를 적용해 탁월한 복원력과 안정적인 지지력을 구현했다.

하단 메인 스프링은 3가지 강선을 9



개의 영역으로 배치해 신체를 세밀하게 지지하며, 반복적인 사용에도 흔들림 없는 탄탄한 수면감을 제공한다.

‘매트리스 로얄스위트프라이م’은 3가지 강선을 9개의 영역으로 배치한 티타늄 포켓스프링으로 몸을 부드럽게 감싸고 친환경 MDI 폼을 적용해 소재 안정성을 강화한 모델이다.

‘매트리스 멜로우드림’은 자연 친화적 감성을 강조한 제품으로, 친환경 뱀부 원단을 적용해 흡습성과 통기성이 뛰어나며 항균·소취 기능을 갖췄다.

/김승호 기자